

KB 주식시황

주식시장을 세로지를 ‘우주항공’ #1. 스페이스X의 역사 ①

제목은 아이유 노래 'strawberry moon'의 '바람을 세로질러 날아오르는 기분'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아이유가 직접 만들었다고 알려진 '세로질러'라는 표현이 우주항공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로질러 올라가는 로켓처럼, 주식시장도 세로질러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역사가 가리키는 시사점: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의 중요성

스페이스X의 설립 초기 (2002~2008년)를 되짚어 보면, 중요한 시기마다 미국 정부기관 (국방부, NASA, DARPA 등)의 지원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스페이스X에 대해 다룬 책 『리프트오프』 참고). 그리고 그 지원은 '로켓 발사에 성공하기 전부터' 이뤄졌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이전 자료들 ([연간전망 요약 #3. 기술 패권경쟁 \(우주항공\)](#) 등)을 통해 DARPA의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서 우주항공 분야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DARPA가 스페이스X의 사업 초기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확인된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발사해 보기도 전인 2003년에 첫 번째 발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은 'DARPA가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었다. 소형 실험 위성인 TacSat을 궤도에 올리는 내용의 계약이었으며, DARPA는 그 외의 추가적인 지원들을 통해 ① 작고 유망한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의도와 ② 장기적으로는 빠르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 제작을 하기 위한 의도 등을 갖고 있었다.

둘째, 스페이스X의 설립 초기에 DARPA의 지원이 있었다면,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는 NASA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가 성공하기 전부터 성공한 직후까지, NASA는 스페이스X에 주요한 계약들을 여러 차례 맡기게 된다. 2006년 8월의 COTS 계약 (상업궤도운송서비스, 2억 7,800만 달러), 2008년 12월 CRS 프로그램 (상업수송서비스, 10억 달러) 등이 대표적이고, 3차 로켓 발사 전에는 초소형 인공위성 CubeSat 2대를 의뢰하기도 했다.

『리프트오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4번의 로켓 발사 (3번 실패, 그리고 4번째에 성공)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자금을 거의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8년 12월 NASA의 CRS 프로그램을 수주한 덕분에, 그 이후부터 로켓을 상업화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지원: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지원

국내에서 가장 기대하는 정책적인 변화는 '우주항공청 설립'이다. 위의 스페이스X 사례처럼 한국판NASA라고 불릴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우주항공 분야 민간기업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향후 우주항공청이 추진하게 될 프로젝트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당장의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항공 분야의 중요 변곡점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또는 우주항공 분야 이슈)들이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5년 초까지 탑재체를 선정해서 탑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다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우주탐사 로드맵'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식전략

2023년 11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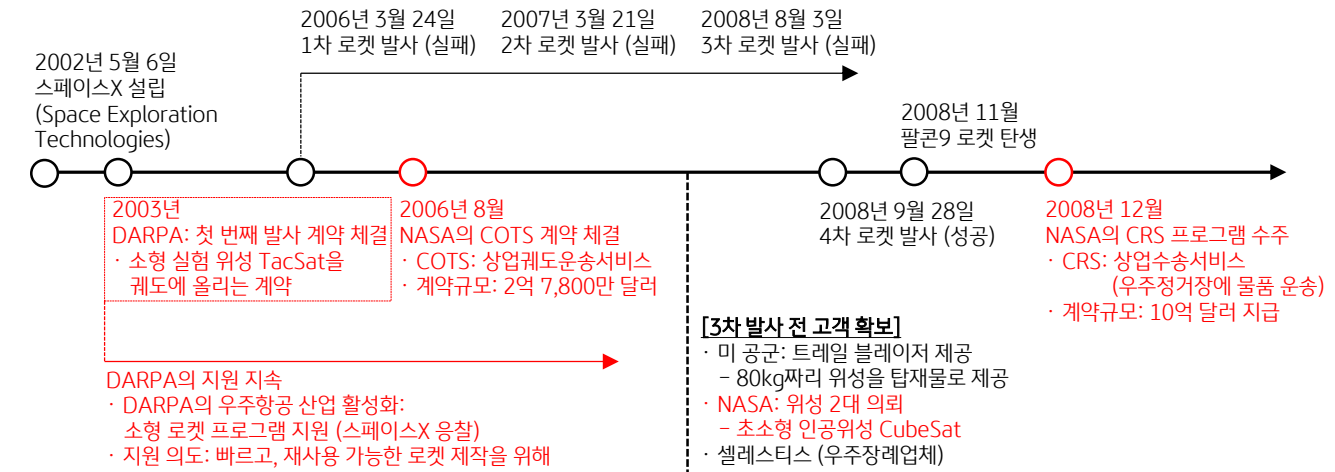
더 많은 리포트 보기

우주항공 관련 자료

#	우주항공 관련 자료
1.	[정반합 (正反 → 合)] 새로운 세계화 #1. 인디아의 성장에서 찾을 한국의 기회 (9/20)
2.	[50년 사이클의 역사]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11/1)
3.	50년 사이클의 역사: 연간전망 요약 #3. 기술 패권경쟁 (우주항공) (11/13)

자료: KB증권

그림 1. 스페이스X의 사업 초기 'NASA와 DARPA의 지원'



자료: KB증권

표 1.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현황

구분	세부 내용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차관급)으로 두는 것에 합의 우주항공청 청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임명 불허 (우주항공청 직원은 가능) 비상설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부위원장은 별도 민간 전문가 선임해 감독 권한 부여)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쟁점: 우주항공청의 R&D 수행 여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직접 수행은 청의 핵심 기능’ vs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역할 충돌 우려’ → 10월 27일 과기부 장관, 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항우연·천문연에 대한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등의 (역할 충돌 우려 해소)

자료: KB증권

표 2.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발표일	세부 내용
10월 30일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정책 추진방향 ①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하여 확정할 예정 (시기는 언급 X) ② 우주탐사 로드맵을 기반으로, 달 착륙선 탑재체의 공모 추진할 계획 → 2025년 초까지 탑재체를 선정하여 별도사업으로 탑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
11월 3일	[한국군의 첫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30일: 정찰위성 1호 발사 예정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 이용) · ‘425사업’: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에 대한 감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① 목표: 2025년까지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 (EO)·적외선 (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 ② 현황: 11월 30일 발표 예정인 정찰위성 1호 - 전자광학 (EO)·적외선 (IR) 장비 탑재 위성 ③ 향후 계획: ‘2호기’는 2024년 상반기에 발사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기 개발을 통해: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을 확보 - SAR 위성 4기 개발을 통해: SAR 센서 제어 및 송수신장치를 국산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